

가정의달 5월 기념일 몰려 '쌈채류 가격' 오름세 전망

맑은 날씨로 안정적 공급에 대부분 품목 약보합세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각종 기념일이 몰리면서 소비증가로 쌈채류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행한 농산물 소식지 '얼마오 1807호'에 따르면 최근 각종 축제와 행사철을

맞아 소비가 늘고 있는 상추 등 일부 쌈채류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상추 100g당 소매가격은 800원으로 한달 전 600원보다 33.3%가, 1년 전 500원보다는 6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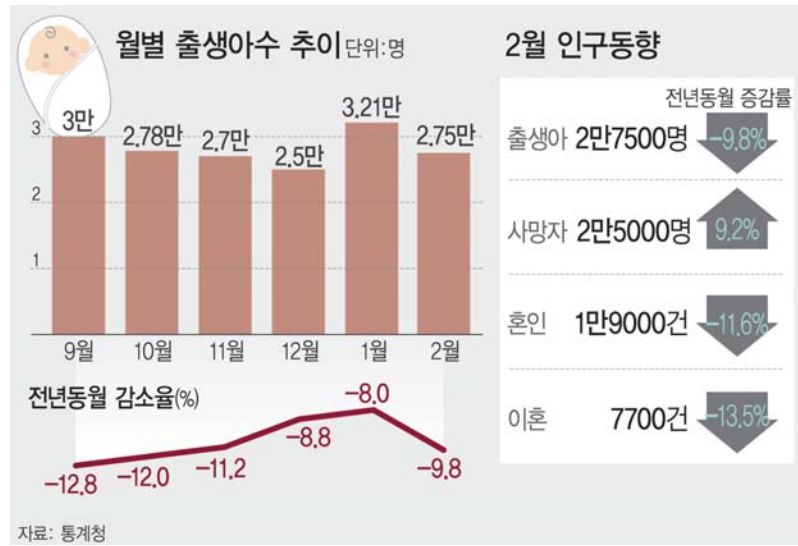
과채류는 최근 기상여건이 호전되면서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박과 방울토마토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기타 대부분 채소류는 약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수박 1개당 소매가격은 2만3000원으로 1년 전 1만7400원 보다 33.9% 올랐다. 방울토마토는 1kg당 5330원으로 한달 전 4498원 보다 18.5%, 일년 전 5300원보다는 0.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장분이 축하되고 있는 과일류 사과와 배는 한식 이후 소비가 둔화되면서 거래 부진과 딸기, 참외 등 제철과일 공급물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T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으로 대부분 품목이 약보합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외식수요 증가 영향으로 쌈채류 등 일부 품목은 강보합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통계청, 2월 출생아 2만7500명...역대 '동월 최저'



2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나란히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혼인절벽까지 우려되는 등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숫자도 2월 기준 손에 꼽힐 정도로 많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사망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75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300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2월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부터 27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정책 당국이 저출산 대응에 나선지 오래지만, 저출산 현상은 이미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모양새다. 감소폭은 축소되다가 다시 확대

출생아 27개월 연속 감소
혼인건수, 전년비 11.6% ↓
사망자, 11개월 연속 증가

되는 양상이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은 지난해 11월까지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12월(-8.8%) 들어 한 자릿수로 줄었다. 올해 1월에는 -8.0%까지 줄었지만 2월 들어 다시 두 자릿수에

가까워졌다. 2월까지만 지표로 보면 올해 출산 전망은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35만 800명으로 집계 이래 가장 낮았고, 합계출산율도 1.06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그런데 1~2월 누계 출생아 수는 5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줄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9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2500건) 감소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치다. 2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4.2% 감소한 4만3400건에 불과했다.

혼인과 출산이 바닥을 찍는 가운데 사망자 숫자는 2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지난 2012년 2월(2만5000명)과 더불어 동월 기준 역대 최고다. 1~2월 누적 사망자 수는 5만66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나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4월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폭은 확대되는 추세다.

한편, 2월 혼인 건수는 77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12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스

모자반 열풍... 완도산 '팽생이 모자반' 일본 첫 수출

aT, 내달 20톤 첫 수출...日현지 판촉·홍보행사도

바다의 슈퍼푸드로 알려진 전남 완도산 '팽생이 모자반'이 일본으로 첫 수출 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완도산 팽이 모자반 20t이 오는 5월부터 일본으로 수출된다고 25일 밝혔다.

팽이 모자반은 일본 시장에서 새로운 슈퍼푸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불고 있는 모자반 열풍은 함양 물질로 확인된 '후코이단'이 모자반에 다량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인들을 괴롭히는 봄철 질병인 꽃가루 알레르기에 효과가 탁월하고,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 다이어트와 미용효과, 변비·내장지방 비만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내달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모자반은 '개물 모자반'으로 국내에서는 잘 먹지 않는 종류다. 국내에서는 '참물 모자반'을 주로 식용으로 쓰고 있다.

한국산 모자반은 일본산에 비해 품질과 향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T 오사카 지사에 따르면 한국산 모자반은 일본 현지에서 소포장 또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으로 가공돼 판매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aT는 공동으로 한국산 모자반의 일본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주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마켓테스트 등 판촉·홍보 행사를 열고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aT 관계자는 "일본 현지 소비트렌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일본 시장에 맞는 수출유망 품목을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바다의 슈퍼푸드인 완도산 '팽생이 모자반' 20t이 오는 5월 일본으로 첫 수출 된다. 모자반은 일본 현지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함양 물질로 확인된 '후코이단'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마켓테스트를 통해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전남 어가 평균소득 4900만원

5년 연속 증가

전남지역 어가 소득이 5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어가 평균소득이 4902만 원을 기록, 전년(4708만 원)보다 4.1% 늘었다.

연도별 어가 평균소득은 2013년 3859만 원, 2014년 4101만 원, 2015년 4389만 원이다. 어가 평균 자산도 4억 3723만 원으로 전년(4억 896만 원)보다 6.9% 증가했다.

어업 형태별로는 양식어가 평균 소득이 7750만 원으로 어로어가 평균소득 3812만 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어로어가는 1.8% 증가한 반면, 양식어가는 7.9% 증가했다.

특히 양식어가의 지난해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5869만 원)보다 1.3배 높았다.

이는 지난해 해양여건 양호로 어류와 해조류 양식 소득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경영주의 어가소득이 1억 2139만 원, 자산은 7억 2842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 40대 이하 어가경영주 비중은 15.0%로 전국 수치인 10.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어가소득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0대 이하 어가경영주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전남도가 어촌의 청년 유인을 위해 펼친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정정해역 전남의 수산물 가치를 높여 어업인 소득이 더욱 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귀어정책 및 청년창업 지원으로 많은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3.30%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i-보금자리론'은 전월과 동일한 연 3.40%(민기 10년)~3.6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i-가변-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3.30%(10년)~3.5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외벌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5년 이내)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1자녀 연소득 8000만원 이하 ▲2자녀 연소득 9000만원 이하 ▲3자녀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